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이었고, 분석대상은 232명 이었다.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능력, 자기수용, 대인관계 유능성이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50.7%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에서는 성별($F=3.86, p=.000$), 대학생활 만족도($F=3.02, p=.019$)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의사소통능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자기수용($r=.346, p<.001$), 공감능력과($r=.531, p<.001$), 대인관계 유능성($r=.68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과과정과 프로그램 적용 및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For the study, 232 nursing students in a certain region were survey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20.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empathy, self-accepta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50.7%.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cation skills, variations were seen due to gender ($F=3.86, p=.000$)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F=3.02, p=.019$). Also, self-acceptance ($r=.346, p<.001$), empathy ($r=.531, p<.001$),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r=.680, p<.001$)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skills. In conclusion,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have specialized communication programs that reflect the curriculum and also programs that help increase empath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based on the gender of the student.

Keywords : Communication, Communication Cap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 acceptance,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Jong-Im Kim(Jungwon Univer)

email: jikim17@jwu.ac.kr

Received December 17, 2020

Accepted March 5, 2021

Revised January 27,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사소통 능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더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자질이다[1] 대학생 시기는 취업 활동을 준비하는 시기로 전문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조건으로, 그 중에서도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등 변화된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은 질적인 간호제공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2]. 그러나 실제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등의 낮은 환경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미래 간호사로 사회에 진출할 간호대학생은 여러 상황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부담감이 가중되어 있어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및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은 환자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간호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3], 의사능력부족으로 인한 대인관계 갈등의 경험은 간호사들의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직무수행, 직무만족도,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4], 대인관계의 원활한 소통 및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지만,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집단에 잘 어울리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된다[5]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학생에게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원만히 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을 몸에 익혀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다[6]. 따라서 학생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인을 예측하여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자기수용은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수용이 가능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비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7].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상처받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감소한다[8]. 이러한 자기수용은 개인의 전반적인 적응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9].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대

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단점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위해 자기수용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인[11],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해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발달시킴으로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 특성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공감, 수용 등의 개인의 특성들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12]. 특히, 공감능력은 사회적 관계를 유능하게 하고 친밀한 관계를 촉진시키는 등 친 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13] 공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타인의 생각, 느낌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14], 공감을 통해 대인관계가 효과적이고 만족스럽게 유지될 수 있다.

공감능력과 함께 의사소통능력에 중요 영향 요인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15], 인간의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 삶의 질을 좌우한다[15]. 대학생들은 대인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16]. 특히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17], 그렇지 못할 경우, 불안, 우울 등 심리적 혼란과 사회적 고립 및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아정체감 형성과 인격 발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16]. 따라서 사회에서 유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달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적응적인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소통능력과의 영향력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18], 자기이해, 의사소통[6]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관계성을 규명하며 의사소통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기

술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의 분포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이 의사소통능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J대학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IRB 승인번호 1044297-HR-202006-007-02)을 받은 후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 학생, 연구기간 동안 결석자, 외국 유학생, 설문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자료 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보조자가 해당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250부 이었고, 그중 설문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모두 제외한 23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19]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표본 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중간정도인 .15, 독립변수 7개를 포함했을 때,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53명이 요구되었으나 학교 등교일수에 따른 학년별, 시기별, 비대면과 대면수업 교체시기로 설문지 미회수율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 연구대상 학과 전체 인원을 참여시켜 진행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일반적 특성,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학교생활만족도, 종교, 봉사활동 경험유무, 임상실습 경험유무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자기수용

자기수용은 Chamberlain과 Haaga[20]의 자기수용 척도(Revised 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Questionnaire: USAQ-R)를 Chuseo와 Lee[2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하위영역은 존재로서 자기수용,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으로 구성되었다. 존재로서 자기수용은 인간으로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자기수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은 성공, 실패, 능숙함, 미숙함, 가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은 판단과 관계없이 자기를 수용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은 칭찬이나 비난과 같은 피드백과 상관없이 자기를 수용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수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Chuseo와 Lee[21]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0$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1$ 였다.

2.3.2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22]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Jeon[23]이 재구성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하위영역으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23]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6$ 이었다.

3. 연구 결과

2.3.3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의 측정도구는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Reis[24]가 개발한 대인관계 능력 검사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Kim과 Kim[2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9문항으로 하위영역은 처음관계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조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및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im[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3$,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4$ 이었다.

2.3.4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Choi[26]의 의사소통 능력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의사소통능력 척도는 Navran[27]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PCI(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의 내용을 Choi[26]가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언어적 의사소통 20 문항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척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경청의 기술, 자기노출 및 자기표현의 능력, 공감의 능력, 관계형성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26]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0.85$ 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수용성,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이, 성별, 학년,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종교, 봉사활동 경험유무,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임상실습 경험유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나이는 22-24세가 214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 16명(6.9%)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58명(25.0%), 여자가 174명(75.0%)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58명(25.0%), 2학년 58명(25.0%), 3학년 58명(25.0%), 4학년 58명(25.0%)이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보통' 정도의 만족도가 111명(47.8%)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만족한다' 16명(6.9%), '약간 만족한다' 76명(32.8%), '약간 불 만족한다' 24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상위권'이 114명(49.1%)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권' 59명(25.4%) 이었고, 종교는 기독교가 50명(21.6%)으로 가장 많았고, 봉사활동 경험유무에서는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가 181명(7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에서는 213명(91.8%)이 '아르바이트를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임상실습 경험유무에서는 121명(52.2%)이 '경험이 있다', 111명(47.8%)이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의 수준

대상자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의 점수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기수용은 5점 만점에 전체 $3.2 \pm .47$ 이며, 하위영역으로 '존재로서의 자기수용'의 점수는 $3.46 \pm .42$, '판단 분별로부터 자기수용'은 $3.51 \pm .43$,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은 $2.64 \pm .45$ 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전체 점수는 5점 만점에 $3.48 \pm .35$ 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으로 '인지적 공감'의 점수는 $3.44 \pm .47$, '정서적 공감'의 점수는 $3.51 \pm .46$ 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전체 점수는 5점 만점에 $3.83 \pm .44$ 이며, 하위영역으로 '처음관계맺기'의 점수 $3.5 \pm .46$,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3.5 \pm .48$ 로 나타났으며, '자기노출'은 $3.53 \pm .48$, '정서적 지지 및 조언'은 $3.66 \pm .45$, '대인갈등 다루기'는 $3.65 \pm .47$ 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 전체 점수는 5점 만점에 $3.57 \pm .44$ 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은 점수 $4.2 \pm .43$,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3.63 \pm .43$ 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의사소통'의 점수는 $3.76 \pm .40$ 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N=232)

Variables	Categories	n(%)	
Age(yr)	19-21	92	39.7
	22-24	214	53.4
	>25	16	6.9
Gender	Male	58	25.0
	Female	174	75.0
Grade	Freshman	58	25.0
	Sophonmore	58	25.0
	Junnior	58	25.0
	Senior	58	25.0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16	6.9
	A little satisfied	76	32.8
	Common	111	47.8
	A little unsatisfied	24	10.3
	Very unsatisfied	5	2.2
Credit	High	59	25.4
	middle	114	49.2
	Low	59	25.4
Religion	Christian	50	21.6
	Caldolic	27	11.6
	Buddhism	21	9.1
	Other	1	0.4
	None	133	57.3
Volunteer experience	Yes	181	78.0
	No	51	22.0
Part-time experience	Yes	213	91.8
	No	19	8.2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21	52.2
	No	111	47.8
Total		232	100.0

Table 2. Level of self-acceptance, empath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of the research subjects (N=232)

Variables		Total score M±SD	Items score M±SD	Range
Self-acceptance	Self-acceptance as being	17.30±3.13	3.46±.42	5-25
	Self-acceptance from judgment classification	17.56±3.56	3.51±.43	6-30
	Self-acceptance from feedback	13.24±2.28	2.64±.45	4-20
	Total	48.10±7.10	3.2±.47	15-75
Empathic ability	Cognitive empathy	51.65±5.87	3.44±.47	15-75
	Emotional empathy	52.65±6.04	3.51±.46	15-75
	Total	104.31±10.59	3.48±.35	30-150
Interpersonal competence	First relationship	28.04±4.82	3.5±.46	8-40
	Claiming offense to others	28.01±3.41	3.5±.48	8-40
	Self-exposure	28.29±3.90	3.53±.48	8-40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29.43±3.75	3.66±.45	8-40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24.91±3.37	3.65±.47	7-35
	Total	142.58±16.20	3.83±.44	39-195
Communication ability	Verbal communication	42.73±5.68	4.2±.43	10-60
	Nonverbal communication	32.67±4.16	3.63±.43	9-45
	General communication	15.04±2.50	3.76±.40	4-20
	Total	89.44±11.09	3.57±.44	25-125

Table 3. Self-acceptance, empathy, interpersonal competence, communication skills of the research subject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32)

Variables		Self-acceptance			Empathic 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Communication ability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Age(yr)	19-21	3.09±.44a	4.31	.014	3.53±.34b	3.35	.037	3.68±.41	.753	.472	3.62±.42	1.31	.272
	22-24	3.27±.47a			3.45±.33ab			3.64±.41			.355±.55		
	>25	3.33±.50b			3.30±.48a			3.54±.46			3.45±.52		
	Duncan	a<b			a<b								
Gender	Male	3.16±.48	.63	.428	3.35±.34	10.03	.002	3.53±.41	-2.54	.012	.338±.46	-3.86	.000
	Female	3.22±.47			3.511±.35			3.69±.40			3.64±1.42		
Grade	Freshman	3.11±.47a	2.93	.034	3.50±.39	1.55	.201	3.63±.41	2.07	.104	3.59±.44ab	3.21	.024
	Sophonmore	3.13±.57a			3.52±.32			3.69±.38			3.60±.39ab		
	Junnior	3.22±.34b			3.39±.40			3.55±.37			3.43±.44a		
	Senior	3.34±.49b			3.48±.32			3.73±.47			3.67±.46b		
	Duncan	a<b									a<b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3.25±.40	2.25	.064	3.51±.51b	3.21	.014	3.78±.62b	4.18	.003	3.64±.58b	3.02	.019
	A little satisfied	3.30±.50			3.55±.34b			3.75±.42b			3.66±.43b		
	Common	3.18±.49			3.45±.33b			3.62±.37b			3.55±.43b		
	A little unsatisfied	3.00±.39			3.41±.17ab			3.48±.30a			3.47±.37b		
	Very unsatisfied	3.05±.20			3.04±.20a			3.21±.22a			3.06±.37a		
	Duncan				a<b		a<b			a<b			
Credit	High	3.25±.50	1.41	.245	3.48±.35	1.51	.221	3.69±.43b	2.67	.071	3.60±.40	1.70	.184
	middle	3.21±.44			3.50±.39			3.69±.39b			3.61±.45		
	Low	3.12±.49			3.40±.35			3.54±.41a			3.48±.49		
	Duncan						a<b						
Religion	Christian	3.31±.53	1.17	.322	3.49±.39	1.21	.304	3.67±.44	.576	.680	3.58±.46	1.15	.332
	Caldolic	3.21±.53			3.50±.42			3.66±.49			3.54±.53		
	Buddhism	3.07±.43			3.58±.38			3.72±.38			3.73±.39		
	Other	2.86±. .			3.00±. .			3.12±. .			3.04±. .		
	None	3.19±.43			3.45±.02			3.64±.39			3.55±.42		
	Duncan												
Volunteer experience	Yes	3.22±.46	1.08	.280	3.50±.34	1.98	.048	3.68±.42	1.98	.048	3.60±.43	1.95	.052
	No	3.14±.50			3.39±.38			3.55±.47			3.47±.47		
Part-time experience	Yes	3.02±.47	.487	.482	3.47±.35	1.27	.260	3.65±.41	.151	.698	3.58±.44	.852	.395
	No	3.20±.47			3.48±.29			3.64±.45			3.49±.46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3.27±.42	5.71	.018	3.44±.36	2.19	.140	3.64±.43	.303	.583	3.55±.46	.667	.415
	No	3.13±.51			3.51±.51			3.67±.49			3.60±.42		
Total		3.20±.47			3.47±.35			3.65±.41			3.57±.44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기수용은 연령($F=4.31, p=.014$), 임상실습 경험유무($F=2.39, p=.01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서 25세 이상이 $3.33 \pm .50$ 으로 22-24세의 $3.27 \pm .27$ 보다 자기수용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25세 이상 군이 19-21세, 22-24세 보다 자기수용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4$).

학년에서는 4학년이 $3.34 \pm .4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에서는 3.4학년이 1.2학년 보다 자기수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경험유무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군이 $3.27 \pm .42$ 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군 $3.13 \pm .47$ 보다 자기수용이 높았다($p=.018$).

공감능력은 성별($t=-3.16, p=.002$), 대학생활만족도($F=3.21, p=.0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19-21세 군이 $3.53 \pm .34$ 로 25세 이상 군 $3.30 \pm .48$ 보다 공감능력 평균이 높았다. 사후분석에서도 19-21세 군이 22-24, 25세 이상 군보다 공감능력이 더 높았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3.51 \pm .35$ 로 남학생 $3.35 \pm .34$ 보다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군이 $3.51 \pm .51$ 로 만족도가 낮은 군 $3.04 \pm .20$ 보다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공감능력은 대학생활만족도가 '매우 만족한다'는 군, '조금 만족한다'는 군, '보통'인 군, '약간 불만족한다'는 군이 '불만족 한다'는 군보다 공감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에서는 성별($t=-2.54, p=.012$), 대학 생활 만족도($F=4.18, p=.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3.69 \pm .40$ 으로 남학생 $3.53 \pm .41$ 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p=.012$), 대학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는 군, '조금 만족한다'는 군이 '매우 불만족 한다'는 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만족도에 '매우 만족한다'는 군과 '조금 만족한다'는 군이 대학생활만족도가 '보통'인 군, '조금 불만족한다'는 군, '매우 불만족 한다'는 군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3$).

의사소통능력은 성별($t=-3.86, p=.000$), 학년($F=3.21, p=.024$),대학생활 만족도($F=3.02, p=.01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3.64 \pm .42$ 로 남학생 $3.38 \pm .46$ 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p<.000$). 학년에서는 4학년이 $3.67 \pm .46$ 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에서도 4학년이 1학년($3.60 \pm .40$), 3학년($3.47 \pm .47$)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더 높았다.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군 의사소통능력이 $3.64 \pm .58$ 로 '매우 불만족 한다'는 군 $3.06 \pm .37$ 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도 매우 만족하는군, 만족하는군, 보통, 조금 만족한다는 군이 매우 불만족하는 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더 높았다($p=.019$)(Table 3).

3.4 대상자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수용과($r=.346, p<.001$), 공감능력과($r=.531, p<.001$), 대인관계 유능성($r=.680, p<.001$)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은 공감능력($r=.205, p<.001$)과 대인관계 유능성($r=.45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공감능력은 대인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self-acceptance, empath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of the research subjects (N=232)

Variables	Communication ability		Self-acceptance		Empathic 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r	p	r	p	r	p	r	p
Communication ability	1							
Self-acceptance	.346	<.001**	1					
Empathic ability	.531	<.001**	.205	<.001**	1			
Interpersonal competence	.680	<.001**	.453	<.001**	.535	<.001**	1	

**p<0.01

Table 5. Effect on the research subjects' communication skills (N=232)

Variables	B	SE	Beta	t/F	p-value
Constant	11.773	4.802		3.183	.000
Interpersonal competence	.409	.034	.589	.251	.000
Empathic ability	.283	.053	.263	5.363	.000
Gender	-2.212	1.052	-.086	-2.102	.027
Grade	1.175	1.017	.046	1.115	.149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482	1.628	.011	.279	.581
Self-acceptance	.283	.068	.011	.248	.251

R²=.545, Adj R²=.53.3, p<.001

Dummy variable: Gender(M=1, F=0), Grade(Senior=1, Other=0), Satisfaction on college life(Satisfaction=1, Unsatisfactory=0)

관계 유능성과($r=.535, p<.001$)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년, 대학생활만족도를 Dummy변수로 전환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의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은 1.998로 2에 가까워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28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89-1.744로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을 예측변수로 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7.31, p<.001$), 의사소통능력을 수정된 R²는 53.3% 설명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beta=.589, p<.001$), 공감능력($\beta=.273, p<.001$), 성별($\beta=-.086, p=.027$), 자기수용성($\beta=.011, p=.251$)이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이 의사소통능력을 50.7%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과 대학생활만족도, 성별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의 점수를 살펴볼 때, 의사소통능력은 점수 범위가 5점 만점으로 3.57점으로 선행연구[28]의 3.58점과 비슷한 점수로 나타났으며, Lee, Chung의 연구[29]의 3.73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평가도구나 평가환경 및 심리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비대면 온라인강의와 대면강의를 학년별 교대로 학교생활을 하던 시기로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학년, 성별,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은 4학년과 2학년은 높게 나타났고, 3학년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29]에서 3학년이 1.2학년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18]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3학년 학생인 경우 첫 임상실습 등으로 인한 부담감 등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며, 4학년은 임상실습 등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년별 차이가 있어 해당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능력이 상대방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상대방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해석하고 자신의 의도한 바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하는 능력[30]으로,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31],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에게

중요한 역량으로[29],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능력에서는 대학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군이 대학생활에 불만족 하는 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32]에서도 대학생활만족도는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32],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우관계나 대학생활이 관련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대학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의사소통 능력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으로[28], 미래의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은 영향요인인 변수들을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적절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기수용은 전반적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평가에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되며[8],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은 연령과 학년에서 평균값이 높았고, 자기수용과 의사소통, 공감능력, 자기수용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선행연구[33]에서도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수용이 높았고, 자기수용이 높은 경우에 의사소통능력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수용이 높은 집단이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와[34]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에 중요 영향요인으로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의 이해를 돕고,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35] 하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 양의 상관관계로 의사소통능력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Chae[35]의 연구에서도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즉,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공감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6]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학생활만족도와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Chae[35]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대학생활의 만족이 안정 및 의사소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과 관련성이 높은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학업활동과 교우관계 등 안정적인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인관계 유능성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32]에서도 대학생활만족도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은 서로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32]. 따라서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영향요인을 반영하여 시기에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국,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공감능력이었다. Chung[36] 연구에서도 공감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서 공감을 잘 할수록 대인관계를 잘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에서 주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인 대인관계 유능성과 공감능력의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학생활 적응력 및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유지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적 적용도 고려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폭 넓은 상담실 운영 등을 모색하여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에서는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의사소통능력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자기수용, 공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을 수용하고 대인관계의 유용성까지 포함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실제 봉사활동이나 임상실습을 통한 대인감동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술 훈련 및 경험을 하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집단 상담활동 등을 활용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적 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수용, 공

감능력, 대인관계 유능성간의 관계성을 규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공감능력이었으며,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할 만족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은 의사소통 능력과 서로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심리적 변수를 추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의 특성과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확인하여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의사소통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반복 및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측정할 수 있는 질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T. Gordon, T.E.T(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GTI Korea, 2010.
DOI: <https://doi.org/10.2307/4445451>
- [2] T. S. Laidlaw, H. Macleod, D. H. Kaufman, D. B. Langile, J. Sargeant, "Implementing a communication skills programme in medical school: needs assessment and programme change, medical reinforced self understanding in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36, pp. 115-124, 2002.
DOI: <https://doi.org/10.1046/i.1365-2923.2002.01069.x>
- [3] Lee, SH, Chung SE. Influenc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2):340-34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2.340>
- [4] S. H. Kim, M. A. Le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3, pp. 332-341, 2010.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4.20.3.332>
- [5] S. N. Kim, S. S. Bu "The Impac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on the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2, No. 4, pp. 511-524, 2013.
DOI: <https://doi.org/10.5934/kihe.2013.22.4.511>
- [6] Y. S. Park, S. B. Im, H. S. Kim, "The effects of reinforced self understanding in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 361-368, 2009.
- [7] A. Ellis, R. A. Harper, A guide to rational living. (3rd ed.). North Hollywood, CA: Wilshire. 1979.
DOI: <https://doi.org/10.1037/e536762004-001>
- [8] J. O. Im, S. S. Jang, "Trends and suggestions in research on self-acceptanc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 33, No. 1, pp. 159-184, 2012.
- [9] D. L. Macinnes, "Self esteem and self 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3, No. 5, pp. 483-489, 2006.
DOI: <https://doi.org/10.1111/i.1365-2850.2006.00959>
- [10] G. E. Song, J. H. Im, "Parental acceptance in relation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Self-acceptance as a mediating factor", Vol. 26, No. 4, pp. 117-144, 2015.
DOI: <https://doi.org/10.14816/sky.2015.26.4.117>
- [11] S. B. Im, "Communication education in nursing: To promote self awareness",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care, Vol. 1, No. 1, pp. 59-66, 2006.
- [12] F. Luthans, C. M. Youssef, B. J. Avolio,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DOI: <https://doi.org/10.4135/9781446212752.n2>
- [13] K. W. Kim, U. J. Cho, G. M.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sychological growth and social competence empathy as a mediating variable",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Vol. 12, No. 3, pp. 1-13, 2005.
- [14] A. Smith,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The Psychological Record, Vol. 56, No. pp. 3-21, 2006.
DOI: <https://doi.org/10.1007/bf03395534>
- [15] A. L. Danoff, "The effects of multiple preventive intervention strategies on alcohol and other drug knowledge and behavior,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of at-risk you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rry University. 1996.
- [16] S. M. Kwon, Life in the second act of college, Seoul, 2010.
- [17] T. S. Hu, S. M.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ccepta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5, No. 2, pp. 45-63, 2017.
DOI: <https://doi.org/10.35151/kyci.2017.25.2.003>
- [18] Y. M. Lee, S. Y. Pak, Y. H. Jung, J. Y. Lee, M. J. Lee,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606-616,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606>

- [19]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 175-191,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0] J. M. Chamberlain, D. A. F. Haaga,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 Behavior Therapy, Vol. 19, No. 3, pp. 177-189, 2001.
DOI: <https://doi.org/10.1037/t00471-000>
- [21] M. R. Chuseo, Y. S.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26, No. 1, pp. 27-43, 2014.
- [22] M. H. Davis. "Empathy: as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Westview Press, 1996.
- [23] B. S.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3.
- [24] D. Buhrmester, W. Fo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8.
- [25] C. D. Kim, S. I.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skills", Student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ife Institute, Vol. 35, No. 1, pp. 83-95, 1999.
- [26] E. Y. Choi,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skills group on high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4.
- [27] L. Navran,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The Family Process, Vol. 6, pp. 173-84, 1967.
DOI: <https://doi.org/10.1111/j.1545-5300.1967.00173.x>
- [28] G. S. Jung, G. A. Kim, G. A. Sung,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413-422,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3.413>
- [29] S. H. Lee, S. E. Chung, "Influenc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2, pp.340-349, 2014.
- [30]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 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 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 [31] J. Ammentrop, S. Salroe, P. E. Kofoed, J. Mainz, "The effect of training in communication skills on medical doctors' and nurse' self efficac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atient Education & Counselling, Vol. 66, pp. 270-277, 2007.
DOI: <https://doi.org/10.1016/j.pec.2006.12.012>
- [32] H. S. Kim, W. J. Park, T. H. Ha,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29-237, 2006.
- [33] S. H. Park, J. E. Kim, B. R. Bang, "A Study on the effects to the communication capability and the accommodation of other person's perspective for the self understanding, the self accommodation and the self communication : center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in Gungji-do and Seoul",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7, pp. 410-422,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7.410>
- [34] A. J. Lee, S. M. Choi,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acceptance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7, No. 5, pp. 95-103, 2015.
DOI: <https://doi.org/10.15703/kjc.16.4.201508.209>
- [35] M. O. Chae,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95-103,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5.95>
- [36] M. S. Chung, "Relationship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332-340,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332>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간호교육, 감염관리